

2011.06.27 미래정책연구실

□ FAO, 양우 식량 가격 상승과 변동성 확대 예상

1. FAO, WSJ(2011.06.17) 주요 내용

- 'OECD-FAO Agricultural Outlook 2011-2020' 보고서는 식량수요 증가 전망에 비해 생산량 증가 속도가 매우 느려 **식량가격 상승과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, 향후 10년간 식량가격이 30% 가량 상승할 것으로** 전망함.
 - 품목별로는 급속히 증가하는 **개발도상국 중산층의 소비 증가로 가금류와 돼지고기 가격은 각각 30%, 20% 정도 상승할 것으로** 보이며, **곡물 가격도 약 20% 오를 것으로** 예상함.
- 세계 식량 생산량은 **향후 10년 동안 연간 1.7%씩 늘어날** 전망인데, 이는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(2.6%)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임.
 - 밀 생산량은 2020년까지 연간 0.8% 증가한 7억 4,600만 톤이 전망되며, **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** 예상됨.
 - 반면, 아시아 국가들의 주식인 쌀 생산량은 **2020년에 5억 2,800만 톤이** 예상되는데, **연평균 증가율은 1.3%로 수요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** 전망됨.
- 해마다 심해지는 **기후변화**도 식량 재고의 감소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며, 이로 인해 10억명에 달하는 전세계 기아인구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.
- 최근 수년간 급변하는 **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성**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점이 되어왔지만, 앞으로 **식량부족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은 일상화될 것**이라고 보고서에는 밝힘.
- 이와 관련하여 G20 장관들은 내주 중 식량 생산과 비축에 대한 전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.

- 이에 대해 OECD와 FAO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곡물 수급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요구는 지지하지만 금융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식품가격을 올리는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피할 것이라고 밝힘.
 - OECD와 FAO의 관계자는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적인 활동이 장기적으로는 식품가격 변동을 유발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만, 단기적으로는 가격 움직임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.
- 앙헬 구리아(Angel Gurría) OECD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**식량 관련 정보와 식량거래의 투명성**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함.
 - 개발도상국이 식량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고, 식량 위기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.
- 자크 디푸(Jacques Diouf) FAO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곡물 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, 앞으로 **가격 변동성**은 농산물 시장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. 또한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힘.
 - 아울러 **기아인구의 89%가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향후 10년간 기아인구가 47% 급증할 것으로** 예상되어, 이들 국가에 대한 농업투자와 농촌개발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FAO 사무총장은 밝힘.

2. 시사점

- 투기자본의 시장왜곡, 신흥국가들의 수요 증가,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국제사회는 식품 가격변동성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.
-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식품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.
 - 국제 식품가격의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최근 세계 식품가격 상승에 대한 장·단기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

※ 'OECD-FAO Agricultural Outlook 2011-2020'은 세계농업에 게재할 예정으로 작업 중